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개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직무대리) 노수현,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6일 상위법령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물용의약품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어야 하는 「유용제」를 약사 이외에 의사, 수의사 또는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지정이 가능토록 완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철새주의 경보 ‘도래단계’ 발령

검역본부는 겨울철새의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가금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난 6일부로 「철새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새주의 경보(도래단계)를 발령하였다. 철새 조기경보 시스템은 농가에서 가금류와 철새가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국립 생물자원관)와 검역본부의 철새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다. 검역본부는 ‘도래단계’ 발령에 따라 가금 농가 및 관련차량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철새가 가금 농가에 일정 반경 내 접근 시 자동으로 농가와 지자체에 방역조치 강화 알림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을 오는 12월 중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조하여 철새의 이동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동물용의료기기 상생협력협의회 개최



검역본부는 지난 7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과 함께하는 동물용의료기기상생협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 3.0」 정책에 발맞추어 한국동물의료기상생포럼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동물용 의료기기 관계자간 소통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젠 닦고기 살때도 동물복지 인증마크 확인!

검역본부는 '14년 12월 18일 도입·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육계) 인증제와 관련, 육계농장 1개소, 토종닭 농장 1개소에 대해 국내 최초로 육계분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복지 육계농장 1, 2호로 인증받은 농장은 전북 정읍과 안성에 소재한 7만수 규모 육계농장(H농장)과 3만5천수 규모 토종닭농장(A농장)이다. 이들 농장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보다 넓은 사육공간과 외부위협을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도구인 화 및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물건(채소, 나무조각 등)을 제공하는 등 닦고 유의 습성유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암모니아·CO₂가스 농도 등 환기 관리, 적정한 급이·급수기 제공 등 사육환경 관리여건의

동물의 복지 수준이 일반농장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육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육밀도를 19수 및 $30\text{kg}/\text{m}^2$ 이하(기존 사육방식 25~6수 및 $39\text{kg}/\text{m}^2$)로 관리함으로써 닭들 간의 불필요한 먹이 경쟁을 막는 등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육계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적인 방법으로 운송·도축 처리된 닭고기에는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조만간 전북 부안 소재 (주) 000 도계장과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개정 고시

검역본부 지난 20일 임상시험용 동물용 의약품 등이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 제조될 수 있도록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5와 별표 6)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상위법령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등이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시설이 아닌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될 경우에도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 제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농촌진흥청

아시아 축산발전 위해 연구 성과 나누는 자리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회원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가축유전지원의 생산성 향상과 임업 기술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AFACI 축산프로그램 연례평가회'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엔에



서 열렸다. AFACI 축산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총 11개국이며, 아시아 지역 축산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2013년부터 각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회원국은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관계자와 농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축산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축산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축산홍보관이 지난 6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축산홍보관은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 완주) 1층에 전체 면적 336m^2 규모로 지어졌으며, '축산의 변화', '새로운 시작&행복한 시대', '희망축산'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축산의 변화'에서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문헌에 기록된 가축 사육과 개량의 역사, 국립축산과학원의 주요 연구 성과를 디지털 액자로 소개한다. '새로운 시작&행복한 시대'에서는 가축 사양 표준 활용과 축

산물 가공 기술과 함께 개량을 통해 만든 닭 품종 실물 모형 등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희망축산’은 미래 우리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김진만 원장, 추석맞이 지역 소외계층 방문



김진만 원장은 지난 9우리 24일 소외받는 이웃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기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로하는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위문방문은 인증원에서 매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중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AI 선제적 현장방역체계 가동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 이하 지원본부)는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고병원성 AI 근절 및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

간으로 정하여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방역활동(상황실 운영, 농장예찰, 초동방역 출동태세 완비 등)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원본부는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본부와 8개 도본부·42개 사무소에 설치·24시간 운영하고, 전화예찰과 농장방역실태점검을 강화하여 사전에 질병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질병 유입 및 확산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HACCP 토탈 콜센터 구축

인증원은 ‘축산물HACCP 고객들(민원인)의 편의 및 만족 제고를 위해 고객상담 대표번호(☎1800-5200)를 신설하고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이 인증원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축산물 HACCP관련 전화 상담시, 통화대기 및 부재 시 예약 전화를 남길 수 없었고, 본·지원간 내선 연결이 불가하여 통화 종료 후 민원인이 해당 본·지원으로 다시 전화연결을 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사항이 있어왔다. 이번 콜센터 구축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본·지원 통합 고객상담 대표번호로 일원화(☎1800-5200)하였고, 업무 담당자별 통화분배가 가능해졌으며, 부재중 일 땐 예약 전화번호를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800-5200로 하면 된다.

창립 9주년 기념행사 개최

인증원은 지난 15일, 경기도 안양시 본원 3층 대강당에서 ‘창립 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본원을 비롯해 중부(대전), 영남(대구), 호남(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지원 등 전국을 방문하여 축산물 해썹(HACCP) 심사를 하던 모든 심사관 까지 함께했다.

여주 해밀영농조합법인 ‘뜨레난’,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 획득



경기도 여주에 자리 잡고 있는 산란계 브랜드인 해밀영농조합법인 ‘뜨레난’이 축산물안전리인증원으로부터 ‘안전관리통합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원 김진만 원장은 지난 12일 경기 여주에 위치하고 있는 해밀영농조합법인(이하 해밀영농조합)에서 안전 관리통합인증 적용에 대한 인증서 증정식을 갖고 김태곤 대표에게 인증서를 전달했다. 해밀영농조합은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받기위해 HACCP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올해 5월부터 인증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현장 컨설팅 및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해밀영농조합은 7번째의 통합인증 브랜드가 되었으며, 산란계

로서는 2번째이다.

노사 임금피크제 타결



인증원은 지난 15일 본원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증원지부(손영훈 지부장)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 서명을 했다. 인증원 노사는 그동안 원만한 임금피크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노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 단위 협의를 통해 임금감액률과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에 대해 헌심坦회한 논의를 실시해 서로간의 의견을 좁혀나갔다. 특히, 연차별 임금감액률에 대해서는 전 직원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해 노사합동으로 임금피크제 순회 설명회를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게 되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여의도로 사옥 이전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는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4길 29(흑석동)에서 영등포구 63로 40, 202호(여의도동)로 회관을 이전하였다. 1969년에 창립된 대한영양사협회는 지난 1987년부터 회관 건립을 위한 다양한 모금활동 및 사업을 통하여 2005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을 흑석동에 건립한 바 있다.